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결 과제”



농협중앙회
권영웅 축산지원부장

지난 연말 발생한 AI와 구제역으로 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무리 된 줄 알았던 구제역이 경북 영천 지역의 돼지농

가에서 다시 발생하였으며, AI도 봄이 되면서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3년 이후 4번째 발생한 AI는 어느 해 보다 피해가 크며, 특히 오리 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해 종오리 55만수, 육용오리 124만수가 매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오리 사육 농가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은 AI와 구제역의 조기종식을 위해 225억원의 방역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무너진 사육기반 재건을 위하여 피해복구자금 7천억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AI, 구제역의 조기종식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와 별도로 업계,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



가로 구성된 “가금산업발전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위생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청정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낙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젖소 나눔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금산업은 육계계열 주체와 농가간의 갈등, 계란의 유통비용 과다 및 유통질서 혼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방역시스템 미흡, 농가교육 강화를 통한 방역의식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 종계와 종오리에 대한 해외의존 등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산란계농가의 실익증진과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에 3~4개의 권역별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병아리와 새끼오리 공급을 위해 종계 농장 육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수급 안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와 농가 및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정책건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및 계란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육환경이 열악한 농가들은 생산성 저하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이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구제역과 AI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악성질병의 조기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축산업계와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 정부 및 지자체의 치밀한 대비와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우리 축산업이 슬기롭게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